

[특별초청원고] 한국인의 정신건강 바로보기 2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 서론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암묵적인 수준까지 깊게 자리 잡았다. 2015년 발간된 경찰통계연보를 보면(경찰청, 2015), 연도별로 '정신장애 범죄자' 섹션을 별도로 구분해 그 추이를 정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 비율을 다루는 섹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엄정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하지만,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느냐는 과학적 절차가 적용되기 이전에 과학자의 암묵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즉 연구자의 관심이 없다면, 어떤 현상은 가설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는 수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왔고,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의 통계를 매년 보고하는 경찰 통계연보의 사례나, 범죄-정신질환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다수의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에 대한 암묵적인 관심(interest)이 있고, 나아가 걱정(concern)이 있음을 반증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살펴보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한 해 동안 일어난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에서 정신장애자들이 일으킨 범죄의 비율은 2%에 미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일어난 강력범죄의 경우 총 범죄자 수가 25,346명이었던 반면, 정신장애를 지닌 범죄자는 509명에 불과하다(경찰청, 2011). 이러한 결과는 한 해에만 보고된 것이 아니며,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수준이 보고되었다(경찰청, 2015). 가장 최근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한 범죄 비율은 0.34%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한 강력범죄 비율은 0.68%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각종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갖기에,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김예나, 2017).

범죄율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2008년 기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살인 비율은 13%, 강도 11%, 강간 20.2%, 그리고 방화는 9% 정도이다(법무연수원, 2009). 특히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자(약

(특별초청원고)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

63%)이면서 남성인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범죄 발생 비율은 대략 6%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이 대략 25%이고(보건복지부, 2006), 이들의 범죄 비율이 2%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높은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학력 남성의 범죄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이나 관심보다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통계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니 전체 범죄의 2%이면 많은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폭력과 정신질환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관계를 규명한 엘보겐과 존슨(Elbogen & Johnson, 2009)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북미 샘플 34,653명을 대상으로 1차 서베이 및 3년 후 2차 서베이를 실시한 종단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된 해당 연구는, 일반 모집단 샘플과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샘플 사이에 범죄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약물중독이 없는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3년 이후에 폭력성을 띠게 된 비율은, 일반 모집단 샘플의 비율과 유사했다. 즉, 중증정신질환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사한 범죄 발생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연구에 참여했던 일반인 모집단 샘플의 75%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60%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 비율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반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

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범죄 위험이 높지 않다.

스웨덴에서도 파젤과 동료학자들(Fazel, Långström, Hjern, Grann, & Lishtenstein, 2009)이 유사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현병이 있는 연구참여자 8천여 명, 조현병 연구참여자 가족 중 조현병이 없는 형제들 8천여 명, 일반인 8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조현병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폭력 범죄 비율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율과 유사했다. 이처럼 대규모 연구들은 중증정신질환이 폭력 행동이나 범죄를 유도한다는 우려를 반박한다. 2017년 발표된 논문에서 호긴스(Hodgins, 2017)는 중증정신질환과 공격적인 행동은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정신질환과 사회적 편견

1) 미디어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 사건’의 예로, 주요 공중파 및 종편 뉴스가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민주시민언론연합, 2016),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에서 조현병의 범죄 위험성에 대해 다룬 보도는 3건에 달했다.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마치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명백한 사실인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강력범죄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만으로 시청자는 그들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설명한다. 매우 강력하며 한번 형성된 혐오적 조건형성은 추후 소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조현병’이

라는 단어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 할 중립적 단어로 등장하게 된 낙인 해소 방안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Lee, Kim, & Kwon, 2013). 그럼에도 이러한 언론의 반복적인 보도로 인해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강력범죄와 연합되어 중립적이었던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편견이 더욱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해 조심성 있게 보도해야 할 부분임에도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보도는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사회적 편견의 결과

편견이란 무엇인가? 매리엄-웹스터 사전에서 정의한 편견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가 내 권리를 무시하여 나타나는 상처나 손상;’ 혹은 ‘충분한 지식이나 근거 없이 갖는 부정적인 의견이며, 불특정한 개인, 집단, 인종 등에 대해 지니는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이다. 편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은 슬픔, 불안 그리고 화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무시당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사회에서 배제 되는 것에 대해 생존의 불안을 느끼며,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분노 또는 화를 느끼게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율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 비율이 높다. 조현병 환자의 사고사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위(64.7%)가 자살이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거절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 불안, 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적절한 대처없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면 중증신체질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편견과 차별의 경험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소외나 고독, 사회참여 기회 부족, 소통부재, 우울증, 그리고 높은 신체질병율과 관련된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편견의 경험은 그 자체로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편견을 갖게 한다. 스스로 낙인을 찍고,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기고자 한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남들에게 정신질환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과 유의한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최혜임, 2015; 황태연, 이우경, 한은선, & 권의정, 2006). 또한 사회의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와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태도 및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숨어버리는 패배주의적 믿음을 더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임, 2015).

4. 정신장애 편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간은 모두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편견을 생존을 위한 인지적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2000). 따라서 편견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믿음에 기초한 편견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편견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나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인해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서 혐오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을 받으면 화나고 불안해지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범죄나 자

[특별초청원고]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

살 등 사회문제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신장애의 유무라기보다는 차별행위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력 범죄를 걱정한다면 중증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방안을 생각하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차별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차별행위 혹은 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는 환경의 변화, 즉 사회적 변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편견에는 일종의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두려움 극복에는 이성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복잡한 정신 질환에 대해 생물-심리-사회의 다각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모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 기초하여 정신질환 관련 대중 교육 프로그램과 공익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또한 집단에 대한 편견은 지지적인 환경 내에서 타 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할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심리학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tephan, 1987). 즉,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교육과 함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한다. 실제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봉사 경험 이후,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봤더니 내가 가졌던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만나봤더니 도리어 내가 그분들께 배운 점들이 더 많았다”는 등의 의견을 주었다. 이러한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불안에 대한 성숙이 요구된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충동적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안을 견디면서 그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시청자 혹은 독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사를 통해 정확한 현상을 전달하며,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게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 배려는 상대방이 지닌 가치를 존중해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즉 그들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일, 여가 등을 존중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경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질병의 역경을 겪음으로 타인을 더 잘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있다(최혜임, 2015). 또한 역경 가운데 성장하는 경험을 할 때 자신에 대한 효능감도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도록 하기보다,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도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1). 2011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2015). 2015 경찰통계연보
- 김예나 (2017). [엠빅카드] 조현병, 범죄를 부르는 병?. MBC 뉴미디어 뉴스국.
- 민주시민언론연합 (2016). '강남역 살인 사건' 관련 방송 보도 모니터 보고서.
-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제 1편 범죄의 동향.
-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 실태조사.
- 최혜임 (2015) <조현병 환자에서의 한국판 내재화된 낙인척도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태연, 이우경, 한은선, & 권의정 (2006).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5(5), 418-426.
- Elbogen, E. B., & Johnson, S. C. (2009). The intricate link between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6(2), 152-161.
- Fazel, S., Långström, N., Hjern, A., Grann, M., & Lichtenstein, P. (2009). Schizophrenia, substance abuse, and violent crime. *JAMA Psychiatry*, 307(19), 2016-2023.
- Hodgins, S. (2017). Aggressive behavior among persons with schizophrenia and those who are developing schizophrenia: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limited evidence on causality. *Schizophrenia Bulletin*, 43(5), 1021-1026.
- Lee, Y. S., Kim, J. J., & Kwon, J. S. (2013). Renaming schizophrenia in

South Korea. *The Lancet*, 382(9893), 683-684.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2000). Pride and prejudice: Fear of death and soci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6), 200-204.

Stephan, W. G. (1987). The contact hypothesis in intergroup relations. In C. Hendric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Vol. 9, pp. 13-40).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최초 투고일: 2017년 10월 20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2월 05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2월 13일